

반듯한
군정,
다시 뛰는
영덕

지방경영성공시대
먹고사는 확실한 변화

영덕군수 후보
2 조주홍

중앙과 도정, 그리고 현장을 잇는 **‘세일즈 군수’**

국회에서
정책과 예산이 움직이는 구조를 배웠습니다.

도의회 재선으로
현장 민원을 제도와 예산으로 바꿔본 경험이 있습니다.

군민의 일상을 기준으로
가치와 방향,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덕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 주 홍 입니다.

오늘은 구호보다 제 마음을 먼저 적어 영덕군민들께 올립니다.

선거철이면 좋은 말·아닌 말·그럴듯한 말들이 넘치지만, 저는 제 진심을 제 손으로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영덕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저희 군상 모든 영덕에 있고, 제 삶의 뿌리도 영덕입니다. 고향 영덕은 끝까지 책임지고 가야 할 단 한번 밖에 없는 소중한 삶의 자리입니다.

며칠전, 아직 쌀쌀한 기운의 새벽 영덕 바닷가의 방파제를 걷다 보니, 이 거친 바다에 돌을 쏟아붓고 묵묵히 땀 흘리시던 제 아버지의 뒷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늘번거 제복이면 파김치가 된 몸으로 평상에 주저앉아 내일 먹고 살 걱정부터 하시던 어머니들의 굵은 등도 여오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강구항·축산항 새벽은 살아 움직였습니다. 만선의 대게배와 어장배들이 들어오면 항구가 먼저 깨어났고, 위판장 불빛 아래 사람들 목소리가 파도소리보다 더 컸습니다. 5일장날만 되면 시장골목마다 사람이 떠밀려 다녔습니다. 대게냄새, 청어냄새, 오징어 비린내, 사람사는 냄새가 뒤섞여 '아 살맛나는 영덕'이었지요.

「존경하는 영덕군민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떨습니까? 배는 줄고 장은 비고 예전엔 사람 어깨에 밀려 걸던 시장들은 이제는 찬 바람이 먼저 지나갑니다. 같은 바다에 같은 고향인데 어째서,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그 생각이 떠나 쫓아옵니다.

우리 고향 영덕 참 좋은 곳 아닙니까!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대게며 송이며 바다 팔 보물도 천지입니다. 하지만 태 평생 밤낮없이 일만 하신 우리 부모님들은 늙어서도 병원비 걱정, 노후생계 걱정을 해야 합니까.

우리 아버지·어머니 세대가 다 그랬습니다.

하루하루 식구들 등 떠지게 안 굶게 해보자고 견디며 오신 쌀 굶는 버림목이었습니다.

빠빠지게 농사짓고 고기잡아 자식들 키워 돈으로 보냈건만,

동네 어른들, 처음엔 다들 자랑스레 웃으며 "우리 애 서둘렀다, 대구 자리잡았다, 지금 잘산다" 말씀하셨는데, 점점 더 그 딸같은 한숨과 함께 작아집니다.

"군데... 이제는 영덕으로 내려올 생각도 없다네..."

그 한 마디가 참 가슴을 후벼 뒹니다.

참 답답하고 가슴이 저려옵니다. 이렇게 고향 영덕은 소리 없이 텅 비어 가는 데
“너는 내 편이야, 남의 편이야”며 늙은 편 가르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향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줄 세우기가 웬 말입니까? 저 조주홍. 이 세로운 현실을 반드시 깨부셔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조경하는 영덕군민 여러분」 펄펄 끓는 중동사막으로 가족을 굶기지 않겠다고 여나,
입안에 모래를 씹어가며 돈을 벌어 오셨던 대한민국 아버지들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제가 그 아버지들의 절박한 심정으로 나저겠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위에서 내려주는 예산만 쪼개어 쓰는 ‘관리형 군정’으로는 영덕을 먹여
살릴 수 없습니다. 밖에 나가 악착같이 돈을 벌어오는 ‘경영군정, 세일즈군수’가 되겠습니다.
쓰지 않고 잘자는 공유재산을 과감히 정리하고 국·도비예산을 끈질기게 따와 2026년 거꾸로
6136억으로 △35억 줄여든 영덕살림을 ‘예산1조원시대’로 가겠습니다.

신규원전이든, 햇빛이든, 바람이든 영덕의 미래 자원이 기업의 배만 불리는 게 아니라,
군민들의 지갑을 채우는 든든한 연금이 되게끔 하겠고, 잡아서 넘기고 끝나는 어업이
아니라, 가공과 유통을 묶어 어민들 호주머니와 통장에 진짜 현금이 남게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나이 드니 병원 가기 겁난다”며 한숨 쉬지 않으시고 “그래도 영덕이 좋치고는 나를
참 잘 챙겨준다”고 느끼시도록 의료와 돌봄의 판을 바꾸겠습니다. 군청 문턱도 활 낮춰서
답답할 때 내 맘 알아주는 옆집 친구 같은 행정으로 군민들 수퍼갑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시절, 처음으로 완이 백성을 위해 일하더라” 예전 말씀처럼, 저 조주홍. 훗날 우리 영덕
군민 여러분의 입에서 “야, 조주홍 저 사람 참 권심이었네”
“우리 영덕군이 정말 군민을 위해 죽기 살기로 뛰네”
이런 말이 나오게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영덕군민 여러분」 저 조주홍에게
기회를 꼭 주십시오! 제 한 번밖에 인생을
영덕의 미래가 두렵지 않는 먹고사는 놀라운
변화의 지방경영상공시대로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 조주홍은 압도적으로 잘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조주홍이 영덕의 군수인 것이 군민여러분의
자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6. 5월 조주홍 올림



사람이 오는 영덕



1. 돈이 도는 영덕

산업과 일자리, 세수의 선순환을 만들겠습니다.

- 원전 유치 및 AI 데이터센터 유치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와 RE100산업단지 유치

2. 통합돌봄이 촘촘한 영덕

어르신이 행복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선제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어르신 행복주택 조성

3. 머물며 즐기는 관광 영덕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머물고 다시 찾는 영덕을 만들겠습니다.

- 해양·레저 복합관광단지 조성
- 명상의 도시, 웰니스 산업 육성

멈춘 영덕 경제, 다시 움직이겠습니다.



소통·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군민과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영덕~의성 철도(신공항)연결 추진

2

영덕~삼척 남북 10축 고속도로 추진
지품·남정·달산 IC 출입로 개설

3

농수산물 경쟁력 확보
스마트 수산물 가공단지 조성
남산리 농수산물 유통단지
활성화 및 판로 구조 개선

4

문화 관광산업 활성화
차별화 된 관광콘텐츠 개발
국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한 관광상품 홍보

신규 원전 유치

영덕 경제를 되살릴 '마지막 성장동력'입니다.

영덕은 지금 큰 판을 바꿔야 합니다.

원전 유치는 지원금만이 아닙니다.

일자리와 산업, 정주를 바꾸는 '지역 회복 패키지'입니다.

조주홍의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 1 **군민 동의가 먼저** 과정은 공개하고, 이해되게 하겠습니다.
- 2 **안전이 먼저** 대피와 응급의료, 복합 재난까지 조건으로 챙기겠습니다.
- 3 **상생이 먼저** 지역발전기금과 상생기금, 지역 고용과 지역업체 참여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원전만도, 신재생만도 아닙니다.

영덕 '에너지믹스위원회'로
갈등은 줄이고,
이익은 영덕에 남기겠습니다.

아파도 걱정 없는 영덕, 재난과 안전에 강한 영덕

조주홍! 책임지겠습니다

1

☑ 통합 돌봄

살던 집에서 의료와 돌봄을 한 번에

2

☑ 생활 의료 공백 해소

예방과 조기 진료 강화

3

☑ 산불·태풍 백서와 메뉴얼

현장과 장비 상시 점검

4

☑ 스마트복지 AI 관제센터

24시간 조기 탐지와 신속 대응

산불은 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직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딛고 이겨내겠습니다.



다시 뛰는 영덕

5대 프로젝트

1. 예산 1조원 시대

기간 2027년~2030년

재원 국비·도비·공모·민자, 세원·공유재산

2. '영덕에너지개발공사' 설립

기간 2027년~2030년

재원 에너지 기금·민자, 공사운영 (도·군비 예산투입)

3. 스마트 실버 클러스터 조성

기간 2027년~2030년

재원 국비 공모·산단 지원, 소멸·균특·기획특구기금

4. 700억 기채 상환 (재정 정상화)

기간 2027년~2030년

재원 외부자본·공모, 고향사랑기부제, 공유재산 적극활용

5. 2000만 관광객 시대, 고래볼 · 삼사 호텔 & 리조트 조성 민자유치

기간 2027년

재원 국·도비, 지방 활성화 펀드활용, 민자투자조성 유치

'조주홍의 우리 동네 공약 영덕은 동네마다 다릅니다'

읍면 특성에 맞는 맞춤 발전 전략 영덕을
골고루 발전시키겠습니다.

창수면

- 산악둘레길 조성(창수-갈천-인천)
- 동학혁명 발상지 성역화 사업
- 창수 군부대 부지 매입 후 농업 기반시설 조성

병곡면

- 고래불역과 고래불해수욕장 간 트램 신설
- 고래불 호텔·리조트 민자유치 및 특구 조성
- 국제 해양마라톤 코스 유치
- 명계 양식 스마트 특구단지 조성(백석리 일원)

영해면

- 영해시장 투어버스 주차장 공간 조성
- 영해전통시장 명품화 사업 추진
- 근대 역사문화 정비사업 완성
- 대학 농수산 관련 학과 유치

축산면

- 블루로드와 연계한 축산향 물가자미 특화 먹거리촌 조성
- 대계원조마을 활성화 사업 추진

지품면

- 3·25 산불 피해지역 주민 복지 우선 지원
- 사과 집하·유통 단계 축소 및 지원

영덕읍

- 은어축제와 영덕오일시장 연계 및 장옥 순차 정비
- 통합돌봄 노인 초저가 임대주택 및 청년 전원 주택 보급

달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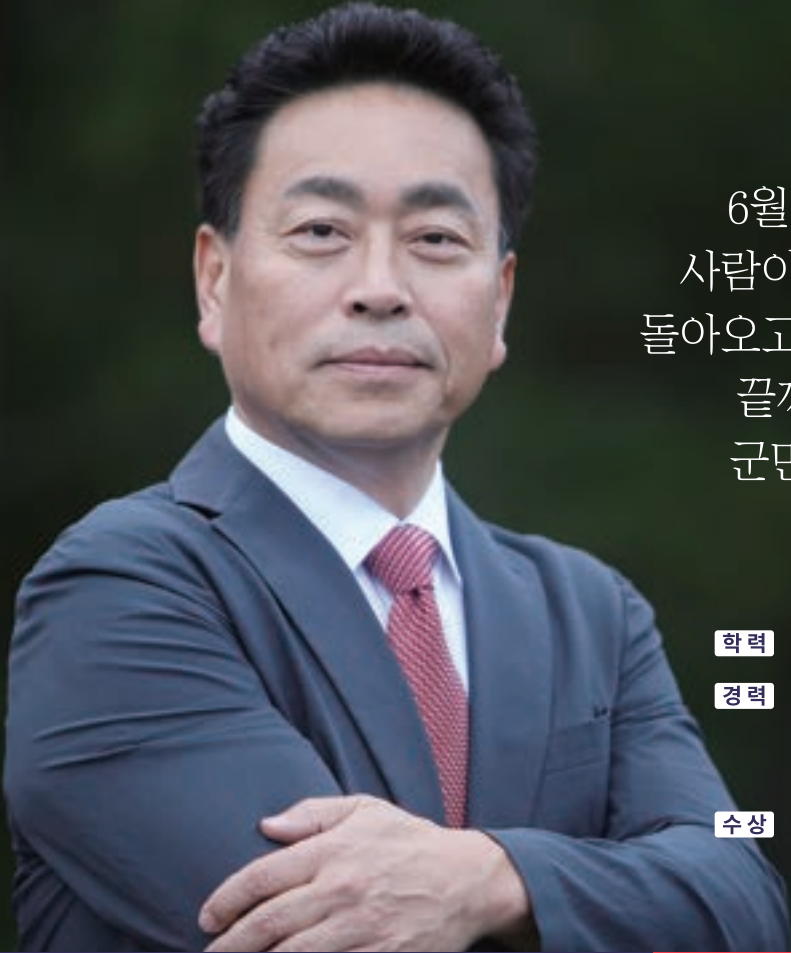
- 바데산 휴양림 조성
- 매현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 옥계계곡 주변 정비사업 및 주차장 조성

강구면

- 신강구대교~삼사해상공원-달산간 연결도로 개설 및 선형개량
- 세상에 하나뿐인 명소 조성 (민자유치)
- 마을복합회관 현대화 신축 조기 추진
- 수자원 보호구역 해제 확대

남정면

- 문산호 보훈부 이관 및 체험관광단지 조성
- 내륙 배후 주말 세컨드홈 단지 조성
- 전국 서핑 메카 추진



6월 3일은 선거일입니다.
사람이 떠나는 영덕이 아니라
돌아오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영덕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학력 경북대학교 정책정보대학원 정치학 석사

경력 전)대한민국 국회부의장 선임비서관
전)경북도의회 제10대·제11대 의원
현)국민의힘 경북도당 부위원장

수상 2019년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지방자치부문 대상
2025년 제14회 대한민국 실천대상 사회공헌부문

사전투표일

5월29일(금)~30일(토)

본선거일

6월3일(수)

투표시간 | 오전6시~오후6시



국군장병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덕의 미래를 책임 질 국군장병 여러분,
국가의 부름에 당당히 응답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계신 장병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건강하고 무탈한 복무생활을 기원합니다.

영덕군수 후보
2 조주홍